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당과 정권기관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

최 종 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 인민을 위하여 기록하신 위대한 업적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하신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6권 중보판 470페이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투쟁을 조직지도하고 생활을 보살펴주는 정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이 정치조직을 떠나서 제각기 활동하여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며 수령은 당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운명을 보살펴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령도적정치조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자면 령도적지위를 차지하여야 한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당의 책임과 그 령도적지위는 절대로 분리될수 없다.

당이 자기의 령도적지위와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당자체의 자멸행위로 될뿐 아니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자기의 책임

을 스스로 포기하는 배신행위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워야 하며 대중적당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계급적정치조직으로,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보았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진보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기때문에 당은 마땅히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

광범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은 당을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건설할것을 요구한다.

더우기 각계각층 군중이 다 사회주의적근로자로 전환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할뿐아니라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다.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자기의 기반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건설되여야 한다.

당은 물론 일정한 계급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이다. 그러나 당을 일정한 계급만을

위한 당으로 건설하여서는 혁명적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당을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인 당건설의 본성적요구이다.

땅속깊이 뿌리박은 나무가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것처럼 당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아야 어떤 환경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다.

사회계급구성이 더욱 단일화되어가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을 근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당으로 건설하는것이 더욱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구체적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당과 대중사이의 관계는 령도하고 령도받는 관계인 동시에 생명을 주고받으며 운명을 보살피고 의탁하는 관계이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당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이며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계승해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사회정치적향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것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숭고한 사랑과 높은 책임성의 표현이다.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자주성의 시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

업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자주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구성성분으로 하는 근로인민의 대중적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중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성에 맞게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그려넣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기발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자주시대의 혁명적당의 빛나는 상징이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의 단결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대중적당건설로선에 따라 로동자, 농민, 지식인의 선진분자들을 널리 당에 받아들이고 당대렬의 량적장성과 질적공고화를 옹결합시킴으로써 당의 계급적, 혁명적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당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전체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대중적당으로 건설되고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당으로,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본분으로 하고있을뿐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으로 되고있으며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지

지를 받고있다.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고 당과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이것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되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굳게 믿고 당에 자기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영광의 나날에나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따르면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해주신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국가정권을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가정권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계급과 사회적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인민대중을 억누르는 착취사회의 국가정권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주의사회의 국가정권의 본질적차이를 주로 계급적성격에서의 차이로 보면서 국가정권을 일정한 계급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독재의 무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권이 무계급사회에 가서는 조락되게 된다고 하였다.

착취사회의 국가정권은 지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다스리는 무

기이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기관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개 근로자들이 정치적권리를 행사하지만 전체 인민의 자주적권리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대표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는 사회공동의 요구와 사회적집단의 매 성원들의 요구를 옹결합시켜 다같이 실현하는 참다운 권리이다.

인민대중은 자주적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인민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로서 인민대중의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값높은 정치생활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자주적권리를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힘을 조직동원하는 사업도 인민정권과 같은 위력한 정치조직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수행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위력은 조직과 단결에 있다. 단결되지 못한 대중은 사실상 창조적존재로 될수 없으며 큰 힘을 발휘할수 없다. 인민대중은 단결하고 협력함으로써만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은 인민정권에 의해서도 실현된다. 인민정권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국가조직에 망라시키고 교육교양하며 하나의 정치력량으로 묶어세움으로써 인민대중이 창조적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물질문화생활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정권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 의무를 지니고있다. 인민정권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전체 인민이 고르게 잘살게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서 노는 국가정권기관의 역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독창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정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국가정권을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힘있는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옹호 조직동원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세워지고 인

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과 활동을 능숙하게 조직하는 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호주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이끌어주시였기에 우리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의사에 맞게 세운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있다.

우리 인민은 인민정권의 품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어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참답게 누리고있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인민정권의 귀중함을 뜨겁게 느끼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있으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에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빛나는 승리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보다 활짝 꽃피날 밝은 앞날을 내다보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해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어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